

##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 집단규범에의 동조를 중심으로\*

신 홍 임†

영남대학교

심리적 거리에 따라 한 개인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받게 되는 사회적 영향은 달라지는가?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많이 느낄수록 의사결정에서 집단의견에 더 민감해질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연구 1(N=101)에서는 해석수준이론을 기반으로 심리적 거리를 조작한 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과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에 따라 집단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보다 의사결정에서 집단규범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 2(N=33)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를 암묵적 연합 검사를 통해 측정된 후, 집단규범의 유형을 찬성조건과 반대조건으로 구분하여 집단규범이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에 따라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갈등상황에서 집단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동의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집단규범의 반대조건에서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많이 느끼는 개인일수록 집단의 반대결정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심리적 거리가 먼 상황에서, 타인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개인일수록, 집단규범에 일치하는 결정을 더 많이 내리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에서는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토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주제어 : 심리적 거리, 집단규범, 의사결정, 구체성, 추상성

\* 본 논문에 대해 중요한 도움 말씀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교신저자: 신홍임,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우: 38541)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종합강의동 418호

E-mail: shin7038@yu.ac.kr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는 특정 대상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에 대한 주관적 경험이다(Liberman, Trope, & Stephan, 2007). Solnit(2013)은 저서 ‘멀고도 가까운’에서 바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어도 심리적으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고, 물리적으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있어도 지금 같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 Liberman 등(2007)은 심리적 거리를 공간적 차원, 시간적 차원, 사회적 차원 및 가상적 차원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공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는 먼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사건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을 말하며, 가상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는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실제 현실의 사건보다 더 멀게 느껴짐을 뜻한다. 또한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는 오래 전 과거에 일어난 사건 혹은 먼 미래에 발생할 사건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보다 더 멀게 느껴짐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사건이 내가 경험하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멀게 느껴지는 것을 뜻한다.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 Trope & Liberman, 2003; Liberman & Trope, 2008)에 의하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보는 구체적으로 표상되며,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보는 추상적으로 표상된다<sup>1)</sup>. 선행연구에서는 해석수준

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Fiedler, Semin, Finkenauer와 Berkel(1995)은 연구참가자들이 먼 미래에 수행할 활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추상적 단어를 구체적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가까운 미래에 수행할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 단어를 추상적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함을 보고했다. 또한 Freitas, Gollwitzer와 Trope(2004)에서는 실험상황에서 참가자의 구체적/추상적 마음상태를 유도하면, 심리적 거리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졌다. 참가자들에게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보게 하는 추상적 조건은 심리적 거리가 먼 상태(예: 장기 목표를 더 많이 생각함)를 유도하였고,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게 하는 구체적 조건은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상태(예: 단기적 목표를 더 많이 떠올림)를 활성화시켰다.

해석수준이론에 의하면 심리적 거리는 정보의 구체적/추상적 표상을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정혜승, 정은경, 손영우, 2011). 이 이론에서는 정보가 추상적으로 표상될수록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정보가 구체적으로 표상될수록 감정과 직관이 주도할 것을 예측한다. Gong, Iliev와 Sachdeva(2012)의 연구

보다 의사결정의 정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조건에서는 추상적 수준의 일반적인 정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해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조작하면, 구체적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마음상태가, 높은 관여도를 조작하면 구체적 정보뿐만 아니라 추상적 정보 역시 심사숙고하는 마음상태가 유도된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추상적 수준의 일반적인 정보를 집단규범으로서 한 문장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연구참가자가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제시받은 정보에 대해 지각한 중요성 또는 노력의 차이인 관여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점검하여 연구참가자가 본문을 주의깊게 읽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자료를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관여수준이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심리적 거리는 관여수준(level of involvement)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Ledgerwood, Trope, & Chaiken, 2010; Trope & Liberman, 2010). 관여수준은 특정 대상에 대해 자신과 관련하여 지각된 중요성과 관심의 정도다(Antil, 1984). 한 개인은 관여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정보를 심사숙고하고, 노력을 많이 들이며, 관여수준이 낮을수록 다양한 정보에 대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직관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대상에 대해 반드시 관여도가 낮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에 대해서는 관여도가 반드시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Trope & Liberman, 2010). 예를 들어, Wakslak 등(2006)의 연구에서는 심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조건에서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조건

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상황변인으로 조작하고,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에서 이성이 주도하는 공리주의 결정과 감정이 주도하는 의무론의 결정을 비교했다<sup>2)</sup>. 그 결과 참가자들은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공리주의 결정을 의무론 결정보다 더 많이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유형의 심리적 거리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공간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예: 브라질)에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예: 국내)보다 공리주의 결정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시간적 차원에서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예: 일 년 후)에서도 가까운 조건(예: 한 달 후)보다 공리주의 결정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Gong 등(2012)의 연구에서는 해석수준이론에서 주장한 것처럼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에

서 정보가 추상적으로 표상되고,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에서 정보가 구체적으로 표상된다면, 추상적 조건에서 구체적 조건보다 공리주의 결정이 더 높은지를 비교했다. 연구자들이 예측한대로 참가자들에게 행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면서, 추상적 마음상태(mind-set)를 유도하는 조건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구체적 마음상태의 조건보다 공리주의 결정의 비율이 더 높았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심리적 거리에 따라 정보처리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이 차별화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즉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서, 보가 추상적으로 표상되면, 감정이나 직관보다는 이성이 주도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우선시된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더 주의가 가도록 하기 때문에, 공리주의 결정의 비율이 증가한다. 반면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상황에서는 정보표상이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된다. 이것은 감정과 직관이 주도하며, 의사결정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주의가 가도록 하기 때문에 공리주의 결정이 감소한다. 이 연구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심리적 거리와 정보표상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한 개인의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심리적 거리를 느끼는 정도는 상황변인뿐만 아니라 개인차변인으로도 고려해볼 수 있다. Bar-Anan 등(2006)은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를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를 토대로 심리적 거리와 구체적/추상적 단어에 대한 반응시간의 차이를 통해 측정하였다. 예를 들어,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단어(예: 타인)가 추상적 범주단어(예: 음료)와 연결될 때 또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단어(예: 가족)가 구체적 단어(예: 콜라)와 연결될 때, 이 반대의 경우보다 참가자의 반응시간이 전반적으로 더 적게 걸린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심리적 거리와 정보표상의 관계가 이미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 심리적 거리와 정보표상의 관계

2)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Conway & Gawronski, 2013; Greene, Sommerville, Nystrom, Darley & Cohen, 2001; Greene, Morelli, Lowenberg, Nystrom, & Cohen, 2008; Greene, 2009; Haidt, 2009)에 의하면, 공리주의 결정은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이득을 도출하는 행동을 더 옳은 행동으로 판단하며(예: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옳다), 결과를 과정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시킨다. 이에 비해 의무론은 최대한의 이득을 가져오는 행동이라도 주체의 의도가 선하지 않으면 옳지 않은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예: 한 명의 생명이라도 무고한 인간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Greene 등(2001)에 의하면 공리주의 결정은 이성이 주도하며, 의무론적 결정은 감정과 직관이 주도한다. 공리주의/의무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상황변인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Greene 등(2001)의 연구에서는 윤리적 갈등상황의 유형에 따라 공리주의/의무론의 결정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비개인적 갈등상황(예: 스위치를 눌러 기차의 방향을 바꿈)에서는 공리주의 결정의 비율이 증가하고, 개인이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개인적 갈등상황(예: 건강한 방문객을 해치는 병원 딜레마)에서는 의무론의 결정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reene 등(2001)이 구분한 개인적/비개인적 윤리적 갈등상황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상황과 심리적 거리가 먼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가 일치하는 상황과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소요되는 반응시간의 차이를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로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일치시행(타인+추상적 단어)과 불일치시행(타인+구체적 단어)의 반응시간 차이가 크게 날수록 사회적 차원에서 타인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두는 개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많이 두는 개인일수록 이성이 주도하는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다. 예를 들어 Bartels(2008)에서는 추론과정에서 심사숙고하는 경향이 높은 개인의 경우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며, 공리주의 결정을 대체로 많이 내렸다. 반면 직관을 선호하는 개인의 경우 심리적 거리를 많이 느끼지 않았으며, 의무론 결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Amit과 Greene(2012)에서는 인지유형의 개인차가 한 개인이 윤리적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공리주의/의무론의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도형을 언어 또는 그림으로 제시한 후, 재인하는 과제를 실시했을 때, 추상적 언어적 표상(‘세모’)을 선호하는 참가자들이 구체적 시각적 심상(‘△’)을 선호하는 참가자들보다 공리주의적 결정을 더 많이 내림을 보여주었다.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심리적 거리를 두면서, 정보를 추상적으로 표상하는 개인일수록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주도하는 공리주의 결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위에 기술한 연구결과를 볼 때, 특정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많이 느끼는 상황이거나 혹은 심리적 거리를 많이 두는 개인일수록, 지금 현재의 맥락과 연관된 정서나 직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이성을 기반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가 먼 상황에서도 개인이 판단하기에 타인의 의견이 집단의견으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은 타인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부각된다면 집단의견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상황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지의 문제를 검증하고자 한다.

#### 심리적 거리와 집단의견에 대한 동조행동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의 관계에 대해 선행연구(Eyal, Sagristano, Trope, Liberman, Chaiken, 2009; Eyal, Liberman, & Trope, 2008; Ledgerwood et al, 2010; Ledgerwood & Callahan, 2012)에서는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은 자기성찰 및 정서조절(Ayduk & Kross, 2010)을 촉진시켜 특수한 상황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고, 자신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원칙(예: 가치, 도덕적 원칙)에 의거한 합리적 결정을 도와준다는 입장이다(Eyal et al., 2008; Ledgerwood et al, 2010). 이것은 일관성(consistency)의 관점이다. Eyal 등(2008)은 연구 참가자들이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예: 일 년 후, 타인의 행동)에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예: 내일, 나의 행동)보다 시험 부정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특수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일반적 도덕적 원칙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일관성을 지지하는 증거다. 두 번째 관점은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둘수록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Ledgerwood & Callahan, 2012). 즉, 의사결정이 자신만의 태도가 아닌, 타인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연성(flexibility)의 관점이다. Ledgerwood와 Callahan(2012)은 연구 참가자들이 시간적으로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예: 일 년 후)에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예: 한 달 후)보다 특정한 사회 정책의 선호도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집단의견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이것은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에 사회적 상황의 영향에 더 민감해질 가능성을 보여주며,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연관된다.

Fazio(2007)에 의하면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은 모두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일관성은 우연적 상황에 의해 자신의 의견이 수시로 변화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유익하고, 유연성은 타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융통성있게 대처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 개인이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상황에서 대립하는,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 타인의 의견이 특히 어떤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해석수준이론을 토대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Ledgerwood(2014)에 의하면, 한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거리는 이 대상에 대한 정보표상뿐만 아니라 개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회적 정보의 유형(한 개인의 의견 vs. 집단 다수의 의견)에도 영향을 끼친다. 해석수준이론(Trope & Liberman, 2003)에서는 우리가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 우연히 만난 사람의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을 예측한다. 예를 들어 택시운전사와 대선후보에 관한 토론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예: 대선이 한 달 후)와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예: 대선이 5년 후) 중에 우리는 대선이 가까운 시점에서 택시운전사의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심리적 거리에 따라 타인의 의견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은 심리적 거리가 정보의 구체적/추상적 표상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행연구(Ayduk & Kross, 2010; Eyal et al., 2009; Gong, Iliev, & Sachdeva, 2012; Ledgerwood & Callahan, 2012)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정서와 직관이 주도하며, 즉각적 상황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반면,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특수한 사회적 영향보다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개인 자신이 지향하는 도덕적 원칙과 가치를 기반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Eyal et al., 2008; Fujita, Eyal, Chaiken, Trope, & Liberman, 2008). 이러한 결과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개인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특정한 맥락이나 세세한 정보의 영향이 적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집단 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정보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 Ledgerwood(2014)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정보표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개인이 어떤 유형의 사회적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지에 영향을 끼치면서,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일관성에서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구체적 정보를 더 민감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우연히 만난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반적인 정보를 더 선호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집단 다수의 의견에 의해 의사결정이 변화될 것을 예측한다. 이 주장은 선행연구(Ayduk & Kross, 2010; Eyal et al., 2009; Ledgerwood & Callahan, 2012)에서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서로 대립되었던 유연성과 일관성에 대한 유익한 설명을 제시한다.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정보가 일반적인 정보보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예를 들어 Ledgerwood, Wakslak과 Wang(2010)의 연구에서는 이번 주에 주방용품을 인터넷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할 때, 내년에 구입한다고 가정한 조건보다 연구참가자의 구매의사결정이 한 개의 제품사용후기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상황에서는 정보표상이 추상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보가 선호된다면, 이 상황에서 개인은 집단다수의 의견으로서 사회적 규범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Ledgerwood와 Callahan(2012)의 연구에서

집단의견이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 의사결정에 더 큰 영향을 주었던 것과 연관된다. 이 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멀게 제시된 조건(예: 정책을 일 년 후에 도입)에서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제시된 조건(예: 정책을 한 달 후에 도입)보다 연구참가자가 찬성비율(예: 설문조사에서 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78%) 또는 반대비율로 제시되는 집단규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집단동조효과는 구체적/추상적 마음상태를 조작하여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조건과 멀게 느끼는 조건을 유도했을 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추상적 마음상태조건(예: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서술)에서 구체적 마음상태조건(예: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서술)보다 연구참가자가 집단규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더 자주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한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정보표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사회적 정보의 유형이 달라질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두 개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심리적 거리, 집단의견 동조 및 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선행연구(Ledgerwood & Callahan, 2012)를 참조하여 심리적 거리와 집단의견을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한 후,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탐색하려 한다. 연구 2에서는 선행연구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사회적 차원에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를 측정하여 윤리적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원의 거리를 조작하여 심리적 거리와 집단 규범에의 동조를 연구한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조절변인으로서 집단규범과 윤리적 의사결정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예: Ledgerwood & Callahan, 2012; Ledgerwood et al., 2010)에서는 대체로 심리

적 거리를 상황변인으로 실험설계안에서 조작하여, 심리적 거리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와 정보표상의 관계는 개인의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Trope & Liberman, 2003). 상황에 거리를 두며, 추상적으로 정보를 표상하고, 이성이 주도하는 결정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상황과의 거리를 짧게 느끼며, 구체적으로 정보를 표상하며, 의사결정에서 심사숙고하는 과정보다 직관을 선호할 수 있다(Bartels, 2008).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는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암묵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추정해볼 수 있다(Bar-Anan et al., 2006).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가 상황에 따른 의사결정과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 1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 가까운 조건보다 참가자들이 집단규범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을 예측한다. 연구 2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한 개인이 받게 되는 사회적 정보의 영향을 조절한다면,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는 상황보다 참가자가 집단규범에 동의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을 예측한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상황에서는 집단규범이 찬성으로 제시될 때,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참가자의 동의정도는 정적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집단규범이 반대로 제시될 때,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는 참가자의 동의정도와 부정적 상관관계에 있을 것을 예측한다.

## 연구 1

연구 1의 목적은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와 집단규범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선행연구(Ledgerwood et al.

2010; Eyal et al., 2009)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타인의 영향(예: 우연히 만난 사람의 의견, 한 사람의 제품 사용후기)에 민감해짐을 보고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보가 추상적으로 표상되고, 이성 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닌, 집단 다수의 의견이 집단규범으로서 제시된다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보다 사회적 정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 1에서는 시간적 차원을 상황변인으로 조작하여, 시간적 거리가 먼 조건과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조건으로 구분한 후, 집단규범의 찬성/반대에 대한 연구참가자의 동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려 한다.

## 방 법

###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101명(남 = 37, 평균 연령 만 20.17세, 표준편차=1.78)이 심리학 교양 수업을 수강하면서 참가하였다. 연구 참가에는 약 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보상을 받지 않았다.

###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집단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신문기사로 소개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글(부록 1 참조)을 읽고, 문항에 응답하도록 지시받았다.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는 Ledgerwood와 Callhan(2012)을 토대로 두 가지 조건(가까운 미래, 먼 미래)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가까운 미래의 조건(n=53)에서 참가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제도가 다음 달에 시행예정인 것으로 읽었다. 반면, 먼 미래의 조건(n=48)에서 참가자들은 동일한 내용을 읽었

지만, 이 제도가 5년 후에 시행예정인 것으로 읽었다. 또한 집단규범에 관한 두 조건(찬성 vs. 반대)을 집단 간 변인으로 조작하였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찬성이 집단 대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집단규범의 찬성조건(n=50)에서는 참가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제도를 찬성하는 한국 대학생이 설문참가자의 78%라는 문장이 포함된 글을 읽었다. 반면,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반대가 집단 대다수의 의견으로 제시되는, 집단규범의 반대조건(n=51)에서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설문참가자의 비율이 78%라는 내용을 읽었다. 즉, 수치는 동일했지만, 제도찬성조건에서는 찬성비율로서, 제도반대조건에서는 반대비율로서 수치를 제시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자율주행자동차 제도에 관한 자신의 태도를 9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1: 매우 부정적, 5: 보통, 9: 아주 긍정적).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걱정하고 있는지에 관해 9점 척도에서 응답하였다(1: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 보통, 9: 매우 걱정된다, 역채점 문항). 이 두 문항의 평균점수로 참가자의 자율주행자동차 제도에 대한 동의정도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글을 주의깊게 읽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법이 언제 시행예정인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했다. 가까운 미래 또는 먼 미래 조건에서 제시된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응답을 기입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참가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참가자 101명 중에서 18명의 학생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결과분석에는 총 83명의 참가자들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 결 과

###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와 집단규범

연구 1에서는 2(심리적 거리: 가까운 거리 vs. 먼 거리) x 2(집단규범: 제도 찬성 vs. 제도 반대)

의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심리적 거리의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F < 1$ , 집단규범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  $F < 1$ . 이에 비해 심리적 거리와 집단규범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1,79) = 5.07, p < .05, \eta^2_p = .06$ . 그림 1과 같이 심리적으로 먼 거리의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의 자율자동차 시행에 대한 동의정도가 집단규범의 찬성과 반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44) = 2.78, p < .05$ . 제도찬성을 집단규범으로 제시할 경우( $M = 5.09, SD = 2.83$ )에 제도반대를 제시하는 경우( $M = 3.20, SD = 2.27$ )보다 참가자들의 동의정도가 더 높았다. 반면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조건에서는 참가자들의 동의정도가 집단규범의 반대조건( $M = 4.94, SD = 2.49$ )에서 찬성조건( $M = 3.85, SD = 2.11$ )보다 더 높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35) = -1.45, p = .16$ . 따라서 자율자동차 제도시행을 먼 미래(5년 후)에 도입되는 것으로 제시한 경우에만 집단규범을 제도찬성과 제도반대로 제시하는 것에 따라 동의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연구참가자가 집단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논 의

연구 1에서는 시간적 차원을 상황변인으로 조작하여, 시간적 거리가 먼/가까운 조건에서 집단규범의 찬성/반대에 대한 연구참가자의 동의정도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으로 거리가 짧은 조건보다 거리가 먼 조건에서 집단의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Ledgerwood와 Callahan(2012)의 연구와 일치하며,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집단규범과 의사결정의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비슷한 상황에 대한 글을 읽어도, 이 상황이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가깝게 소개되는 조건보다 개인이 의사결정에서 집단대다수의 의견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언제나 일관적 의사결정을 도출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제시되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참가자가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관해 원래 갖고 있었던 태도를 사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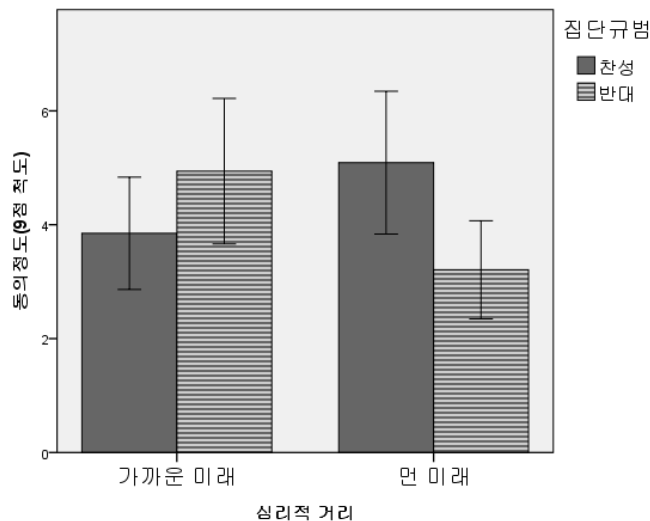


그림 1.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와 집단규범 동조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1의 결과에 대해 다른 대안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참가자들이 자율주행자동차제도를 가까운 미래조건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로 생각하여 반대하고, 먼 미래조건에서는 기술 안정화이후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을 일반적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연구참가자들이 원래부터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본 연구결과를 집단규범과의 동조 또는 비동조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연구 1에서 심리적 거리의 주효과(심리적 거리에 따른 동의정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참가자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사전에 갖고 있었던 동의정도가 다르다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참가자 개인이 사전에 갖고 있었던 태도가 집단규범과의 의사결정의 관계에 혼입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사전태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 1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상황 변인으로 조작하였고,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를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검증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를 멀게 두는 개인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집단대다수 의견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민감해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를 개인차변인으로 측정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상황과 개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집단규범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연구 2

연구 2의 목적은 윤리적 갈등상황을 제시했을 때, 연구참가자가 공리주의/의무론 결정을 선택하는 비율이 집단규범의 찬성/반대 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데 있다. 또한 연구 2에서는 개인적/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차이가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방 법

### 참가자

4년제 대학교의 대학생 33명(남 = 10, 평균연령 만 25.14세, 표준편차 = 3.65)이 교내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해 참가하였다. 연구참가에는 약 15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오천원 상당의 학교식당 쿠폰을 받았다.

###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실험수행자와 연구참가자 간에 일대일 개인실험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는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 번째는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암묵적 연합검사를 수행하였고, 두 번째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집단의견이 제시될 때, 글에 기술된 주인공의 행동에 동의하는지를 응답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참가자의 절반은 암묵적 연합검사를 먼저 수행하였고, 남은 절반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관한 질문지에 먼저 응답하여, 과제순서를 역균형화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의 자극 단어는 선행연구(Bar-Anan et al., 2006)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이 검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나/타인과 연관된 단어들 혹은 구체적/추상적 단어들을 화면중앙에 제시하고, 참가자가 화면 왼쪽의 범주(예: 나, 구체적)와 화면 오른쪽의 범주(예: 타인, 추상적) 중에 어느 쪽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여 반응키를 누르도록 지시했다. ‘나’와 연관된 단어들은



그림 2.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

‘친구, 가족, 우리, 고향, 동의’이었고, ‘타인’과 연관된 단어들은 ‘적, 낯, 그들, 외국, 반대’이었다. 또한 구체적 단어로 ‘망치, 국수, 치마, 콜라, 토끼’와 같이 특정 범주의 예시를 사용하였다. 추상적 단어로는 ‘연장, 음식, 의복, 음료, 동물’과 같은 범주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20개의 단어들은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에게 지시문을 통해 제시하여, 각 개별단어가 나, 타인, 구체성, 추상성의 범주 중에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가

시작되면, 참가자는 왼쪽에 할당된 범주에 부합하는 단어는 키보드의 ‘왼쪽’으로 표시된 반응키를, 오른쪽의 범주에 부합하는 단어는 ‘오른쪽’으로 표시된 키보드의 반응키를 눌렀다. 참가자의 절반은 나와 연관된 단어와 구체적 단어들 이 짝지어지는 일치시행을 먼저 수행했고, 남은 절반은 나와 연관된 단어와 추상적 단어가 짝지어지는 불일치시행을 먼저 실시했다. 이 검사의 일치시행과 불일치시행에서의 반응시간 차이는 Bar-Anan 등(2006)에 따라 참가자의 마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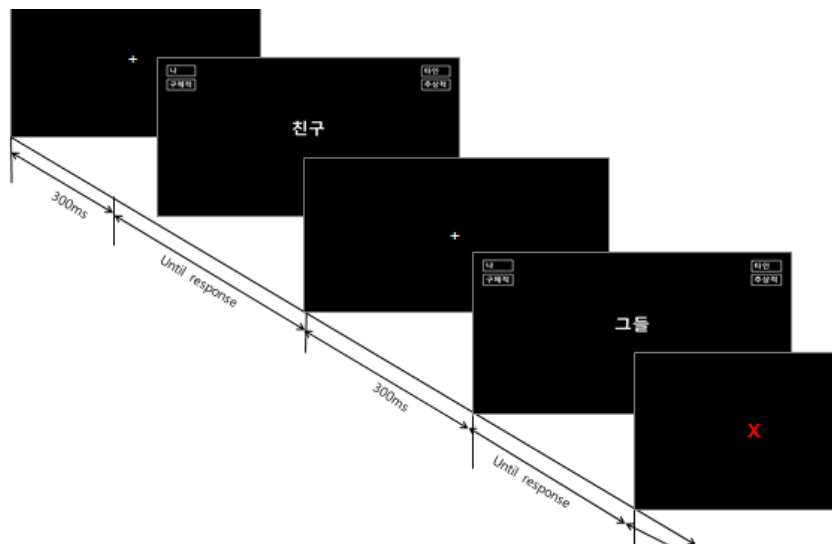


그림 3. 심리적 거리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절차(일치시행)

에 내재된 나·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로 해석할 수 있다.

암묵적 연합검사의 검사자극은 e-prime 소프트웨어(Schneider, Eschmann & Zuccolotto, 2002)를 통해 14인치 컴퓨터화면에 제시되었다. 자극화면은 검정색 바탕에 파란 글씨로 제시되었다. 검사절차는 그림 3과 같이 구성하였다. 참가자의 반응시간에는 제한이 없었으며, 자극화면은 참가자가 반응할 때까지 제시되었다. 참가자들에게는 화면중앙에 제시된 단어가 화면상단의 왼쪽 범주 또는 오른쪽 범주 중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표시된 반응키를 누를 것을 지시했다. 참가자가 오답을 누른 경우에는 빨간색의 “X” 표시가 나타났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총 5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검사는 40회의 연습시행을 포함하여 총 12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중 연습시행블록은 세 개, 본시행의 블록은 두 개로 이루어졌다. 연습시행의 블록에서 첫 번째 블록은 20회의 시행으로, 참가자는 나·타인 또는 구체적/추상적 단어를 각 범주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수행하였다. 두 번째 블록에서 참가자는 10회의 시행으로 나·타인 혹은 구체적/추상적의 단어를 각 범주와 연결시키는 것을 일치시행(나 + 구체적, 타인 + 추상적)으로 연습하였다. 세 번째 블록은 본 시행으로서 40회의 시행으로 진행되었으며, 일치시행이 실시되었다. 첫 번째 블록에서 세 번째 블록까지 범주단어 ‘나’는 항상 같은 위치에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왼쪽에, ‘타인’이 항상 오른쪽에 나타난다. 이에 비해 네 번째 블록부터 다섯 번째 블록까지 범주단어의 위치는 반대로 바뀌어(예: ‘나’가 오른쪽) 제시되었다. 따라서 네 번째 블록은 참가자가 범주단어의 위치가 바뀌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10회의 연습시행이었다. 다섯 번째 블록은 본 시행(40회 시행)으로 참가자는 나·타인 또는 구체적/추상적의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각 범주에 연결시키는 것을 불일치시행(타인 + 구체적, 나 + 추상적)으

로 수행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윤리적 의사결정과제를 수행하였다. 이 과제에서는 집단규범을 두 가지 조건(찬성 vs. 반대)으로 구분하여 참가자에게 글을 제시하였다(부록 2 참조). 윤리적 의사결정과제는 참가자가 개인적/비개인적 상황에 대한 심리적 거리에 따라 공리주의적/의무론적 결정을 내리는데 차이가 나타나지를 비교하고자 실시되었다.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글은 Greene 등(2001)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첫 번째 글은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황에서 기관사가 스위치를 눌러 열차의 방향을 돌려서, 5명의 인부를 살리고, 1명의 인부를 해치게 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었다. 두 번째 글은 의사가 자신의 환자 다섯 명을 살리기 위해, 한 사람의 건강한 방문객을 해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Greene 등(2001)에 의하면, 두 가지 모두 고갈등(high-conflict) 상황이지만, 첫 번째 상황은 스위치를 누르는 행동을 통해 두 번째 상황보다 신체적 접촉과 같은 개인적 관여가 더 낮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비개인적 상황이며, 주인공의 위해 행동에 대한 동의비율이 더 높다. 따라서 첫 번째 상황에서는 주인공의 의도보다는 결과가 더 부각되는 공리주의 결정이 더 많이 내려진다. 반면, 두 번째 상황에서는 방문객을 죽이는, 직접적 신체접촉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 거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개인적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결과보다는 행동의 의도에 초점이 향하며, 주인공의 위해 행동에 대한 동의비율이 더 낮다. Greene 등(2001)에 의하면,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의무론 결정이 더 우세하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과 유사하게 찬성조건(n=17)에서는 참가자들이 읽은 글에 기술된 주인공의 행동에 대해 다른 참가자들의 82%가 공리주의적 결정에 동의하며, 의무론적 결정에는 참가자의 28%가 동의한다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반대조건(n=16)에서는 동일한 수치를 제시하였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반대비율로서 이 수치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연구 2에서는 연구참가자가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개인적 상황과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비개인적 상황에서 각각 찬성 또는 반대로 제시되는 집단 의견의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어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참가자들은 질문을 읽고, 자신의 주인공의 행동에 동의하는 정도를 9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였다. 주인공의 행동에 대한 동의 정도는 Greene 등(2001)에 따라 참가자의 공리주의적 결정으로 해석하였다. 참가자들이 글을 읽고, 응답하는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연구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식당쿠폰을 제공받았으며, 연구수행자는 실험을 종료했다.

## 결 과

###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Bar-Anan 등(2006)에 따라 일치시행과 불일치시행에서 소요된 반응시간의 차이를 산출하고, t-검증을 수행하였다<sup>3)</sup>. 소요된 반응시간(ms)은 일치시행(나 + 구체적, 타인 + 추상적)(M = 1075, SD = 395)에서 불일치시행(나 + 추상적, 타인 + 구체적)(M = 1395, SD = 529)보다 더 적었다,  $t(32) = -4.90, p < .001$ . 이 결과는 '나'의 개념이 '구체적'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 '추상적' 개념과 연결되는 것보

3) 연구 2에서 암묵적 연합검사의 분석결과는 선행연구(Bar-Anan et al., 2006; Greene et al., 2003)에 따라 일치/불일치시행에 따른 평균 반응속도의 차이를 t-검증으로 분석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t-검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반응속도가 정규분포가정을 충족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일치시행, 불일치시행 및 일치/불일치시행 간의 반응속도 차이의 분포는 왜도=.63~1.12, 첨도=-.04~.86으로 West, Finch와 Curran(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의 기준(왜도<2, 첨도<7)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더 수월함을 보여준다. 또한 '타인'의 개념이 '구체적' 개념보다는 '추상적' 개념과 더 잘 연결됨을 보여준다.

###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집단규범조건에 따른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

연구참가자들이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읽고, 집단규범조건(찬성 vs. 반대)에 따라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시나리오(2: 열차 vs. 병원) x 집단규범(2: 찬성 vs. 반대)에 따라 이원변량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시나리오는 집단내변인이었다. 결과에 의하면, 시나리오의 주효과가 유의했다,  $F(1,31) = 67.48, p < .001, \eta^2_p = .72$ . 열차 시나리오의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 정도(M = 5.54)는 병원 시나리오의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 정도(M = 1.61)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신체 접촉과 같은 개인적 관여가 없는 열차 시나리오에서 개인적 개입이 있는 병원 시나리오보다 공리주의 결정이 더 높았다. 이것은 심리적 거리가 먼 상황에서 가까운 상황보다 공리주의 결정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집단규범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 < 1$ . 윤리적 갈등상황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찬성조건 동의 정도(M = 3.83)는 반대조건 동의 정도(M = 3.26)와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에 비해 시나리오와 집단규범의 상호작용이 유의했다,  $F(1,31) = 6.07, p < .05, \eta^2_p = .19$ . 열차 시나리오에서는 집단규범의 찬성조건(M = 6.33)과 반대조건(M = 4.62)에 따라 연구참가자의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31) = 2.52, p < .05$ . 반면 병원시나리오에서는 집단규범의 찬성조건(M = 1.33)과 반대조건(M = 1.92)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31) = -1.01, p = .32$ . 따라서 집단규범의 영향은 심리적 거리감을 상대적으로 더 멀게 느끼는 열차시나리오에서만

나타났다.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 집단규범 및 시나리오 조건에 따른 공리주의 결정의 상관관계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 신체접촉 유무에 의한 시나리오 조건(열차 vs. 병원)과 집단규범(찬성 vs. 반대)에 따라 연구참가자의 의사결정의 방향이 달라지는지를 표 1과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신체접촉이 없는 열차 시나리오의 자료를 검증한 결과, 집단규범의 찬성조건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와 열차딜레마의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정도 간에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 = .18, p = .37$ . 반면, 집단규범의 반대조건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와 열차 딜레마의 공리주의 결정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 = -.54, p < .05$ . 따라서 열차 딜레마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먼 개인일수록 공리주의 결정에 대해 더 많이 반대하는 경향(동의정도가 더 낮음)이 나타나서, 집단규범의 반대조건에서 집단규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직접적인 신체적 개입이 있는 병원시나리오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규범의

찬성조건에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병원딜레마의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정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 = -.01, p = .99$ . 또한 병원딜레마에서는 집단규범의 반대조건에서도 심리적 거리와 공리주의 결정에 대한 동의정도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r = .01, p = .86$ . 이 결과는 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집단규범으로 제시된 정보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집단규범에 동조하는 정도는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혹은 가깝게 느끼게 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를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가 집단규범의 찬성/반대조건에 따라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공리주의 결정과 어떤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 2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를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측정했을 때, 자신과 연관된 개념은 구체적 개념과 연결될 때, 타인과 연관된 개념은 추상적 개념과 연관될 때, 반응시간이 더 적게 소요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한 개인에게는 자신을 구체적으로, 타인을 추상적으로 표상하는 경향이 있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 결과는 Bar-Anan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며, 해석 수준이론의 가정도 지지한다. 둘째, 윤리적 갈등 상황에 대한 글을 제시했을 때, 열차 시나리오(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비개인적 갈등상황)에서 집단규범에 의한 동의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병원 시나리오(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개인적 갈등상황)에서는 집단규범에 의해 연구참가자의 동의정도가 변화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Gong 등(2012)의 연구와 비교해서 해석한다면, 열차시나리오는 병원시나리오보

표 1. 집단규범조건에 따라 분석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시나리오에 대한 공리주의 결정의 상관관계

집단규범	M (SD)	1	2
찬성 (n = 17)			
1. 심리적 거리	385ms (404)		
2. 열차 딜레마	6.33 (1.79)	.18	
3. 병원 딜레마	1.33 (.61)	-.01	.34
반대 (n = 16)			
1. 심리적 거리	245ms (248)		
2. 열차 딜레마	4.62 (2.09)	-.54*	
3. 병원 딜레마	1.92 (1.47)	.01	.32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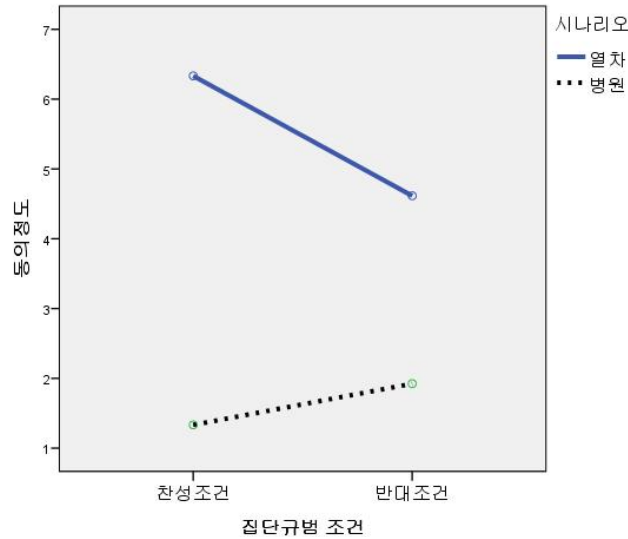


그림 4. 연구 2의 시나리오와 집단규범의 상호작용

다 심리적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단규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셋째, 연구 2에서 집단규범의 찬성조건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공리주의 결정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반대조건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공리주의 결정의 비율 간에 부적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먼 개인일수록 집단규범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공리주의 결정의 관계가 집단규범의 찬성조건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다. 이 결과는 특정 대상이나 특정 현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많이 두는 개인일수록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집단대다수의 찬성의견보다는 반대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이 더 커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Packer(2009)에 의하면, 집단에서 반대의견은 집단소속감이 강하며, 의사결정의 결과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많이 제시된다. 따라서 개인에게 모호한 의사결정의 상황에서 집단의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만으로 이 문제에 답하기는 한계가 있으며, 후속연구에서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거리 집단 찬성/반대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전체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의사결정에서 집단규범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1에서는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를 실험 설계안에서 조작했을 때, 심리적 거리가 먼 조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행에 대한 정책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경향이 집단규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타인에 대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를 암묵적 연합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끼는 개인일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집단규범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집단규범의 반대조건에서 나타났다. 집단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은 타인과의 심리적 거리를 상대적으로 가깝게 느끼는 참가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Ledgerwood와 Callahan(201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집단규범이 심리적 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선행연구(Ayduk & Kross, 2010; Eyal et al., 2008; Ledgerwood et al., 2010)에서 심리적 거리를 멀게 느낄수록 현재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정과 직관에 의한 결정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기반으로 일관적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보고한 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의사결정에서 집단규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제시한 데 있다. 따라서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언제나 일관적 의사결정을 도출한다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제시되는지에 따라 의사결정의 유연성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느낄 경우에 의사결정의 유연성이 집단다수의 의견에 의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 Ledgerwood와 Callahan(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느끼는 상황이나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개인의 경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론으로 제시되는 정보에 민감해질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정보유형(예: 우연히 만난 사람의 개인적 의견, 언론보도)에 따라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이 변화되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차별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를 암묵적 연합검사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암묵적 연합검사는 참가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분석만을 실시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 거리(예: 내일-구체적 단어, 5년 후-추상적 단어)를 암묵적 연합검사로 측정하여 심리적 거리의 유형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규범을 찬성 또는 반대로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하였고, 집단규범을 제시하지 않는 통제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한 참가자의 기본적인 태도를 비교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의 개인차와 의사결정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회적인 정보가 다양한 유형으로 제시되는 조건(예: 집단의견, 우연히 만난 타인의 의견)과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 통제조건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규범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심리적으로 거리가 먼 집단에서 자신의 결정을 일관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보를 고려한다면, 내집단 규범에 의해서 외집단의 대다수 의견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관계에서 집단동조효과에 영향을 끼칠 구체적 변인을 세분화하여 탐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규범의 찬성조건과 반대조건에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개인일수록 반대의견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acker(2008; 2009)는 자신이 속한 집단과 ‘강하게’ 동일시하는 구성원들이 대체로 반대의견도 제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더 많은 규범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을 통해서 볼 때, 집단의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집단규범이 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상황 변인과 개인차변인에 따라 구분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집단규범은 심리적 거리가 멀수록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험실 상황에서는 집단규범을 빠르게 조작할 수 있지만, 현실의 세계에서는 집단규범이 서서히 변화한다. 따라서 일상의 실제 상황에서 집단규범이 어느 정도까지 한 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심리적 거리와 집단동조의 관계에 대해 제시하는 현실적 함의를 생각해볼 수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비하발언이 인터넷에 쇄도했다(2014년 5월 13일 한겨레신문; 2014년 8월 28일 조선일보).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느끼는 상황에서는 우연히 SNS에서 읽게 된 세월호유가족에 대한 몇몇 악성댓글도 충분히 동조행동을 유도할 영향력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해 세월호 3주기가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이 다시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과거의 지나간 '지겨운' 사건으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볼 때(2017년 4월 10일 한겨레신문), 이러한 변화는 정권퇴진에 대한 국민적 대규모 촛불집회가 수차례 개최되며,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한국 사회의 대다수 반응으로서 집단규범으로 지각하게 된 것과 연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심리적 거리와 집단동조의 관계는 다양한 의사결정의 상황(예: 여행목적지의 결정, 새로운 정책도입에 대한 동의정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 적용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일수록 인터넷뉴스나 SNS의 집단의견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집단의견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비해, 대선에 대해 무관심하며, 심리적 거리를 멀게 둘수록 결정을 내리는데 여론조사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집단의견의 형성이 예전보다 더 수월해졌기 때문에, 한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토대로 내리는 의사결정은 이전의 사회보다 독립성과 일관성의 측면에서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Ledgerwood & Callahan, 2012).

한 개인의 의사결정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상호작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특정 대상과 특정 현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두는 개인일수록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후속연구에서는 사회 현상에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는, 개인의 의사결정에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세분화하여 탐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 나은영 (1995). 의식개혁에 장애가 되는 문화적 요인들: 체면과 동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 33-51.
- 이현지, 방희정 (2012). 노인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8, 191-213.
- 정은경, 박상혁, 이수란, 손영우 (2016).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덕적 기반 질문지 적용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0, 47-61.
- 정혜승, 정은경, 손영우 (2011). 확률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이 도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5, 27-40.
- 조선일보 (2014, 8, 28). 경찰, '세월호 유족 비방' 66명 기소의견 송치.[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330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28/2014082803305)



- .html 에서 2017년 2월 12일 자료 얻음.
- 한겨레신문 (2014, 5, 13). 유족이 벼슬? 세월호 관련 비하글 게재 3명 입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6723.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6723.html)에서 2017년 2월 12일 자료 얻음.
- 한겨레신문 (2017, 4, 10). [왜냐면]: 세월호와 함께 돌아오는 3주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90109.html>에서 2017년 5월 10일 자료 얻음.
- Antil, J. H. (1984). Conceptualization & Operationalization of Involvemen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1, 203-209.
- Ayduk, O., & Kross, E. (2010). From a distance: Implications of spontaneous self-distancing for adaptive self-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 809-829.
- Amit, E., & Greene, J. D. (2012). You see, the ends don't justify the means: Visual imagery and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Science*, 23, 861-868.
- Bar-Anan, Y., Liberman, N., & Trope, Y. (2006).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Evidence from an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 609-622.
- Bartels, D. M. (2008). Principled moral sentiment and the flexibility of moral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Cognition*, 108, 381-417.
- Bonnefon, J., Shariff, A., & Rahwan, I. (2016). The soci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Science*, 352, 1573-1576.
- Conway, P., & Gawronski, B. (2013). Deontological and utilitarian inclination in moral decision making: A process dissoci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216-235.
- Eyal, T., Liberman, N., & Trope, Y. (2008). Judging near and distant virtue and v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1204-1209.
- Eyal, T., Sagristano, M. D., Trope, Y., Liberman, N., & Chaiken, S. (2009). When values matter: Expressing values in behavioral intentions for the near vs. distant futur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35-43.
- Fazio, R. H. (2007). Attitudes as object-evaluation association of varying strength. *Social Cognition*, 25, 603-637.
- Fujita, K., Eyal, T., Chaiken, S., Trope, Y., & Liberman, N. (2008).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near and distant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562-572.
- Fiedler, K., Semin, G. R., Finkenauer, C., & Berkel, I. (1995). Actor-observer bias in close relationships: The role of self-knowledge and self-related langua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525-538.
- Freitas, A. L., Gollwitzer, P., & Trope, Y. (2004). The influence of abstract and concrete mindsets on anticipating and guiding others' self-regulatory effor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0, 739-752.
- Gong, H., Iliev, R., & Sachdeva, S. (2012). Consequences are far away: Psychological distance affects modes of moral decision making. *Cognition*, in press.
- Greene, J. D., Sommerville, R. B., Nystrom, L. E., Darley, J. M., & Cohen, J. D. (2001). An fMRI investigation of emotional engagement in moral judgment. *Science*, 293, 2105-2108.
- Greene, J. D., Morelli, S. A., Lowenberg, K., Nystrom, L. E., & Cohen, J. D. (2008). Cognitive load selectively interferes with utilitarian moral judgment. *Cognition*, 107, 1144-1154.
- Greene, J. D. (2009). Dual-Process morality and the personal/impersonal distinction: A reply to McGuire, Langdon, Coltheart, and Mackenzi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 581-584.

- Greene, J. D. (2016). Our driveless dilemma. *Science*, 352, 1514-1515.
- Greenwald, A. G., McGhee, D. E., & Schwartz, J. L. K. (1998).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implicit cognition: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464-1480.
- Greenwald, A. C., Nosek, B. A., & Banaji, M. R. (2003). Understanding and using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I. An improved scoring algorith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197-216.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814-834.
- Haidt, J. (2007). The new synthesis in moral psychology. *Science*, 316, 998-1002.
- Ledgerwood, A. (2014). Evaluations in their social context: Distance regulates consistency and context dependence. *Social and Personality Compass*, 8, 436-447.
- Ledgerwood, A., Trope, Y., & Chaiken, S. (2010). Flexibility now, consistency later: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shape evaluative respond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9, 32-51.
- Ledgerwood, A., & Chaiken, S. (2007). Priming us and them: Automatic assimilation and contrast in group attitud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940-956.
- Ledgerwood, A., & Callahan, S. P. (2012). The social side of abstraction: Psychological distance enhances conformity to group norms. *Psychological Science*, 23, 907-913.
- Ledgerwood, A., & Trope, Y., & Liberman, N. (2010). Flexibility and consistency in evaluative responding: The function of construal level. In M. P. Zanna & J. M. Olson (Ed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3 (pp. 257-29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Ledgerwood, A., Wakslak, C. J., & Wang, M. A. (2010). Differential information use for near and distant decision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638-642.
- Liberman, N., & Förster, J. (2009). The effect of psychological distance on perceptual level of construal. *Cognitive Science*, 33, 1330-1341.
- Liberman, N., Trope, Y., & Stephan, E. (2007). Psychological distance. In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New York: Guilford Press.
- Lowery, B. S., Hardin, C. D., & Sinclair, S. (2001). Social influence effects of automatic racial prejudi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 842-855.
- Navon, D. (1977). Forest before trees: The precedence of global features in visual perception. *Cognitive Psychology*, 9, 353-383.
- Packer, D. J. (2008). On being both with us and against us: A normative conflict model of dissent in social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2, 50-72.
- Packer, D. J. (2009). Avoiding Group think: Whereas weakly identified members remain silent, strongly identified members dissent about collective problems. *Psychological Science*, 20, 546-548.
- Solnit, R. (2013). 멀고도 가까운[The faraway nearby]. (김현우 역). 서울: 민음사.
- Schneider, W., Eschmann, A., & Zuccolotto, A. (2002). E-Prime reference guide. Pittsburgh, PA: Psychology Software Tools.
- Wakslak, C. J., Trope, Y., Liberman, N., & Alony, R. (2006). Seeing the forest when entry is unlikely: Probability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General*, 135, 641-653.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 차원고접수 : 2017. 09. 21.

수정원고접수 : 2017. 11. 11.

최종게재결정 : 2017. 11. 11.

## Psychological distance, group norm and decision making

**Hong Im Shin**

Yeungnam University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istance and susceptibility to social influence in decision making? The present research investigated whether psychological distance could have an impact on conformity to group opinion during decision making. Study 1 (N=101) examined whether increasing temporal psychological distance could be related to changes in a participant's response, when information about majority opinion was provided. According to our results, the conformity effect in the distant future condition was stronger than in the near future condition. Study 2 (N=33) utilized the implicit association test to demonstrate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in psychological distance. The experiment tested whether implicit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distance might be related to moral decisions when group majority opinions were given. The findings implicated that participants who perceived dissimilar others more psychologically distant than similar others, might show more change in their responses to moral dilemmas by majority opinions than other participants, who perceived dissimilar others less distant.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bout psychological distance and group conformity were discussed.

*Key words* : *psychological distance, group norm, decision making, concrete, abstract*

## 부록 1. 연구 1에 사용된 시간적 차원의 심리적 거리에 대한 글

### (1) 가까운 미래(한 달 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법률에서는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사람이 반드시 탑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12월경에 자율주행자동차 법령이 시행될 것이며, 이때는 사람의 판단이 아닌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음 달부터 자율주행자동차는 도입될 예정이며, 이제 곧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2) 먼 미래(5년 후)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에 시행될 자율주행자동차(무인자동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16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법률에서는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사람이 반드시 탑승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경에 자율주행자동차 법령이 시행될 것이며, 이때는 사람의 판단이 아닌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 법령이 통과되면, 2020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는 도입될 예정이며,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 부록 2. 연구 2에 사용된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글과 질문 예시(집단규범의 찬성조건)

당신은 현재 고속열차를 몰고 있는 기관사입니다. 그런데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선로 앞쪽에는 인부 다섯 명이 일하고 있어서, 열차가 계속 직진한다면 인부 다섯 명은 죽게 됩니다. 선로 옆쪽을 바라보니, 다른 쪽 선로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다섯 명의 인부들을 구하기 위해 스위치를 눌러 열차의 방향을 돌리시겠습니까?

1. 위 질문에 82%의 학생들이 스위치를 눌러 열차의 방향을 돌리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당신은 스위치를 눌러 열차의 방향을 돌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반대				보통				찬성

당신은 종합병원 의사입니다. 당신의 환자 다섯 명은 희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장기가 새로 이식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늘 병원에 방문한 건강한 방문객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이 사람의 장기를 당신의 환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방문객을 죽이겠습니까?

2. 위 질문에 23%의 학생들이 방문객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당신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방문객을 죽이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1	2	3	4	5	6	7	8	9
반대				보통				찬성

3. 위의 글에서 학생들의 찬성비율은 어느 상황에서 더 높습니까?

열차의 방향을 돌리는 상황 \_\_\_\_\_ 방문객을 죽이는 상황 \_\_\_\_\_